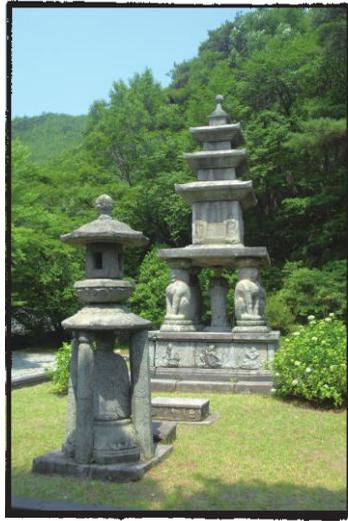


정각도량 154

불기 2565(2021)년 / 정각도량 제154호 / 비매품 포교지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경주캠퍼스 정각원 / <http://jeonggak.dongguk.edu>



특집 | 만해스님 다례재



사사자 삼층석탑 앞 석등



상층 기단부: 연기조사緣起祖師의 어머니라고 전하는 스님상



하층 기단부: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

지극한 효심孝心の 빛,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華嚴寺四獅子三層石塔

신라 진흥왕 5년(544), 연기조사緣起祖師가 세운 전남 구례 화엄사에는 국보와 보물 등 우리나라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전해 온다. 이 가운데 화엄사 '사사자四獅子 삼층석탑'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더불어 우리나라 이형異形석탑의 쌍벽을 이루고 있어 불교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웅장한 각황전覺皇殿을 지나 돌계단으로 오르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한 '사사자 삼층석탑'에 이른다. '사사자 삼층석탑'은 상·하층 2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형태이다. 하층 기단의 각 면에는 3구씩 총12구의 주악천인상을 도드라지게 새겼는데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며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장엄하였다. 상층 기단에는 연화좌대 위에 앞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앉아 있는 암수 2쌍의 사자를 마치 기둥을 세우듯 네 모퉁이에 각각 배치하고 사자 머리 위에 연화대를 얹어 탑신을 떠받치고 있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주목되는 부분은 네 마리 사자상에 에워싸여 있는 중앙의 스님상이다. 이 상은 연기조사의 어머니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사사자 삼층석탑' 바로 앞에는 석등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탑을 향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공양승을 볼 수 있다. 이 승상은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자장율사慈藏律師께서 연기조사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건축한 일종의 불사리 공양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독특한 조형미로 심오한 불국토의 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현한 불탑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cf)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은 정밀진단 결과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8년부터 3년여 간 전면 해체하고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최근 마무리 되어 오는 9월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1200여 년을 지켜온 지극한 효심의 빛이 오늘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와 평안함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길 바래본다.

고승희 / 미술학 박사

■ 건학이념

본교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 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 교육 목적

본교는 건학 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 사회의 이상 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각도량 154호

불기 2565(2021)년 가을호

제호 정각도량은 세종 29(1447)년에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한글로 지은 月印千江之曲에서 집자한 글씨.

정각도량

2 시절인연, 꽃 피우기 / 묘주 스님



표지 사진

전남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全南 求禮 華嚴寺 四獅子 三層石塔, 국보(제35호), 통일신라시대(8세기 중엽), 높이 550cm

정각도량 통권 154호

- 발행일 : 2021년 9월 1일
- 발행처 : 동국대학교
서울 · 경주 캠퍼스
- 서울정각원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Tel : (02)2260-3015-8
Fax : (02)2260-3744
- 경주정각원
38066 경주시 동대로 123
Tel : (054)770-2915
Fax : (054)770-2009
-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김명실(묘주스님)
이창안(철우스님)
- 편집위원 : 김명실, 이창안
정승석, 안양규
- 편집주간 : 정승석
- 편집사무 : 최철복, 이민기, 최연수
- 디자인 / 인쇄 : 중도기획 (02)2278-2240

특집 | 만해스님 다례재

- 5 만해스님과 동국정신 / 윤재웅
- 8 동국인의 표상, 만해스님 / 김광식
- 11 그치지 않는 종소리, 만해 한용운 / 이혜선
- 12 근대인 한용운과 한시漢詩 / 김종인

내 마음의 금언

16 무엇을 기뻐하라 / 안양규

초기 경전의 법문

18 바른 믿음은 수행의 요체 / 이필원

불교와 사회복지

20 With 코로나시대에 자비심 발현과 아동복지 실천 / 이은주

불교 수행의 길잡이

22 인도철학에서 본 불교의 수행 / 심준보

사찰음식 테라피

24 시절 인연이 정해 준 공양 / 안필섭

함께 가보는 성지순례

26 청량함을 품은 오대산을 꿈꾸며 / 혜성 스님

불교예술의 세계

28 감은사지 삼층석탑이 주는 감동 / 진옥 스님

열린 마당

30 봉정암을 다녀와서



시절인연, 꽃 피우기

묘주 스님 |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봄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내리더니, 여름 들어 짧은 장마에 열돔 현상으로 연일 폭염에 많은 생명들이 힘들었다. 오죽하면 “지구가 불탄다.”라는 기사가 났겠는가? 그래도 입추 말복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환절기까지 반갑게 느껴지는데, 가을장마와 폭우가 이어진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한반도에서도 실감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창 희망 갖고 활동할 시기의 청년층에게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이다. 4차 산업사회도 아직 적응하기 어려운데 5차 산업사회라는 개념까지 생겨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구촌이 계속 몸살을 앓는다. 백신접종으로 이제 안심이다 싶었는데, 코로나19의 각종 변이와 돌파감염이 여전히 사람들을 위협한다. 인류역사에서 대규모 감염병·전쟁 등의 재앙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집중폭우가 큰 피해를 남기고, 평균 해수면이 점차 높아져서 지구촌 생명들의 앞날을 어렵게 만든다. 사실 이런 재앙은 근본적으로, 그동안 인간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자연환경·생태계 파괴로 인한 것이다. 물질문명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 함께 지어서 함께 받는 공업#業의 과보이다. 이러한 시절인연에서 위기의식으로 깊이 각성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

‘시절인연’이란 말이 있다. 명대明代 운서주굉雲棲株宏 스님의 『선관책진禪關策進』에서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자연히...척척 들어맞으며 곧장 깨어나가게 된다.”라는 문장에 나오는 용어이다. 오고 가는 인연이 다 때가 있고, 시절인연이 되면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사실 근래 부쩍 심각해진 기후변화나 코로나19 사태도 그럴만한 원인으로 생긴 시절인연이다. 모든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 그럴만한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서 생겨난다. 우리가 윤회과정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하는 것도 시절인연 덕분이다.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은 그 소중한 시절인연들을 아름답게 꽃 피우는 실천이다. 요즘 ‘시절인연’이란 제목의 인기 트롯이 불교정서를 담은 가사로 감동과 힐링을 준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행복할 줄 아는 지혜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홉이 있다.”는 말이 있다. 현상의 원인을 바르게 잘 알면,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인정하면, 이미 좋은 변화가 시작된다. 시절인

연의 소중한 교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려면 시절인연의 원인과 주변조건들, 인과응보법 즉 “인과에 어둡지 않음[不昧因果]”의 지혜가 중요하다. 그 일화 두 가지를 소개한다.

백장야호百丈野狐 공안으로 유명한 백장스님(百丈懷海, 720-814)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백장청구로 선농불교禪農佛敎를 일으켰다. 스님께서 설법할 때 찾아오는 어느 노인이 간청하기를, 전생 수행자 시절에 “크게 수행한 사람이 인과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라고 묻는 학인에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여우 몸으로 거듭 태어났다면서 제도해달라고 했다. 백장스님께서 “인과에 어둡지 않다[不昧因果].”라고 말해서 그를 크게 깨우쳐 여우 몸을 벗어나게 했다고 한다.

또한 12세기 무렵 티베트불교의 고승 돛뽀 스님은, 티베트불교의 중흥조 아티샤 스님의 수천 명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교단 내외에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서 몇 년 고생하다가 입적하였다. 수행력 높은 스님으로서, 있던 병도 나아야 할 터인데, 말년에 문둥병이라니, 남들에게 수치스럽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스님은 전생의 인과법을 통찰하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정진하였다. 사실 이런 마음 자세는, 사선정四禪定 중에서 초선정에만 들어가도 고수苦受·우수憂受가 없고, 진리를 통찰하는 심구尋究·사찰伺察과 희수喜受·낙수樂受·심일경성心一境性의 높은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지는 수행력 높은 출가수행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산의 어느 보살님은 코로나 집콕 생활 기회에 『금강경』을 매일 20독씩 독경하며 공부하기로 다짐하고 실천하면서 하루 하루 즐겁고 불국토 기분이라고 인터뷰해서, 주위에 감동과 발심수행의 희망을 주었다. 인연법의 이치, 연기법·중도법의 이치를 알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불교의 핵심교리인 연기법과 중도법은 인간사회 갖가지 문제 해결의 근본 방향성을 제공한다.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들이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상생과 배려가 강조된다. 중도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인 시각으로 자리아타의 평온한 삶의 방식을 제시한다.

한국불교는 호국불교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서, 교단의 안위보다도 국민안위를 더 중시한다. 국가가

만해스님과 동국정신

윤재웅 | 국어교육과 교수, 만해연구소 소장

있어야 종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등 풍전등화의 국난에서 서산·사명 대사께서 이끄신 승병들이 대승보살도 정신으로 과감하게 전장에 나아가 백성을 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불교계는 사찰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방역수칙을 더 중시해왔다.

지금 불교중흥의 시절인연이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를 중흥시켜야 하는, 중흥시킬 수 있는 시절인연이 도래하였다. 동국대학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 올해 불교중흥을 통한 제2의 건학불사를 시작하였다. 1906년, 국운이 쇠퇴해가던 암울한 시절에 교육보국과 인재불사를 위해 선각자 스님들이 전국 사찰의 삼보정재를 출연해서 명진학교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명실상부한 동국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올해 개교 115주년을 맞이하여, 4월말에 건학위원회가 출범되었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창조하는 제2의 건학불사를 시작하였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중흥이고, 동국중흥이 곧 불교중흥이라는 신념아래 이 세상에 공헌함으로써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려는 취지이다.

건학위원회 고문인 자승스님(조계종 전 총무원장)이 이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발심수행 결사운동이다. 2019년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교단 내외에 큰 감동과 신선한 충격, 수행의지를 불러 일으켰다. 이 결사정신을 이어서 2020년 ‘불교중흥과 국난극복 자비순례’는 한국불교 전통인 만행수행의 가풍을 일깨웠다. 2021년 9월말에 시작되는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만행결사는, 한국불교 성지인 삼보사찰을 순례하며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중흥의 큰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걸음걸음 불교중흥 국태민안을 발원하는 정신이 깃든 행선(行禪)으로서, 머지않아 국내 불자뿐만 아니라 외국의 불자 나아가 일반인들도 찾아와서 순례하는 명소가 될 것이다. 뛰어난 풍광을 지닌 곳으로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일본의 시코쿠 순례길을 넘는 힐링의 코스로 각광받을 것이다.

만행결사의 걷기명상은 일반인에게도 생활 속 건강 관리법으로 시사점이 크다. 근래 MRI(자기공명영상)·MRA(자기공명혈관촬영) 등 영상 촬영을 통해서 뇌의 구조·기능·상태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면서, 뇌 과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규칙적인 걷기운동, 특히 빠르게 걷기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뇌 백질과 기억력이 향상되며,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심지어 기존의 뇌 손상 징후까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기관에서는 건학이념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실천되고 있다. 동국 구성원(교수·직원·학생·동문)의 신행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정각원에서는 기존 프로그램 이외에 주말 가족법회(‘토요 반야법회’), 교수선방, 보현선방, 동국정도염불회 등을 10월 중순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정각도량**

동국대학교는 올해 건학 115년을 맞은 민족사학이다. 1906년 5월 8일에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종로구 창신동 원흥사 내에 설립되었다. 외세에 의해 나라가 침탈당하는 풍전등화의 시기였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가 네 마리 맹수가 서로 으르렁거릴 뿐 아무도 단독으로 해코지할 수 없다는 사수부동(四獸不動)의 풍수형국이라 한다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본, 중국(청나라),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농락했다. 왕조는 무능했고 권신과 탐관오리들이 민생을 착취했다.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월급을 못 받는 군인들마저 들고 일어났다. 나라 전체가 총체적 난국이었다. 민생을 보살필 수도 없고 정의가 실현되지도 않았다. 세계정세에 어두웠고 군사력도 불비했으며 외교 지혜도 모자랐다. 이럴 땐 무얼 어떻게 해야 하나?

외세 대결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을 내세워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이 정당화되었다. 조선 선비의 비장하고 숭고한 기개를 보여준 매천 황현(1855~1910)이 목숨을 끊으며 쓴 시의 구절 “어지러운 세상에 지식인 역할하기 어렵구나[難作人間識者人]”의 통탄이 삼천리금수강산에 흘러넘쳤다.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왔다. 민족 고난의 세월이 36년간 이어지고 그 후로도 남북이 분단되어 민족 대동단결의 역사적 에너지를 낭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진학교 설립 무렵 불교계는 조선왕조의 송유억불 정책에 의해 5백년간 억압받아 온 터였다. 승려의 한양도성 출입금지령이 해제된 것은 1895년, 겨우 건학 10년 전이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 사회에서 스님들은 아예 빠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환경에서 스님들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배우고 가르쳐서 나라를 구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전하는 게 시대적 과제였다. 그것이 동국 건학이념의 기초가 되는 불교홍포와 교육구국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스님은 동국 건학이념의 중요한 두 축인 불교홍포와 교육구국의 최일선에서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그는 원래 전통 유학(儒學)에 기반을 둔 소년 선비였으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1905). 무도한 외국 군사력에 의해서 나라가 깨어지는 걸 보고 공자의 정신으로 무장한 ‘군자의 나라’가 엄혹한 국제현실에서 버려지는 걸 냉철하게 직시했다. 그는 불문에 입문해서 국제정세를 두루 살피려 했다. 러시아와 일본 등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그쳤으나 세계인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가슴 속에 늘 품고 살았다. 승려 신분이다 보니 집안 개혁부터 생각해야 했다. 형식적인 의례 위주의 불교풍토를 타파하고 대중불교를 주창했다. 사찰이 산중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도심 포교당을 만들어 사람들 곁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

양산 통도사와 부산 범어사 등지에 머물면서 팔만대장경 서책들을 열람하고 ‘한 권으로 읽는 경전’ 개

넘부터 기획했다. <불교대전>(1914)은 국한문혼용체로 쓰였으나 팔만대장경을 한 권으로 압축하여 민중들의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불교문화상품이었다. 이런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어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불교성전>(1972, 2021)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만해스님은 당대 현실에서 제일 급한 것이 불경의 번역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실천했다. 요즘말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실행한 셈이었다.

불교계 내부의 구태의연한 관습을 깨트려야 새롭게 태어난다고 했다. 「조선불교유신론」(1913)은 시대를 꿰뚫는 혜안이 있었으나 전통과 구습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 불교는 한용운스님이 혁파를 주장한 100년 전 상황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처님께 복을 달라고 부탁하는 기복(祈福) 불교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 불교의 기복적 성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만해스님이 주창하는 불교홍포는 참선과 경전 공부를 통해서 중생 누구나가 붓다임을 알아차린 뒤 이웃에게도 그 도리와 방법을 일러주는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실천행이었다. 이것이야말로 1700년 한국불교의 뼈대이며 흔들리지 않는 정신생명으로서 총립 동국대학교라는 유기체가 세포 단계에서부터 확고히 심어야 할 불성종자(佛性種子)인 것이다.

만해스님은 교육에도 특별한 열정을 보였다. 승려를 비롯한 청년 교육에 불교의 미래와 나라의 내일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승려의 타락이 자유로운 탐구자세의 결핍, 안목의 왜소, 식견의 편협함에 있다고 본 그는 조선불교의 장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①전문학의 기초학문인 보통학, ②자연사범(自然師範)·인사사범(人事師範)의 사범학, ③지식을 교환하고 학문을 교류함으로써 사리를 밝히는 외국유학 등을 제시했다. 이것은 명진학교의 건학이념과 다를 바 없었다.

승려의 근대교육에서 출발한 명진학교는 순수한 민간자본을 출자하여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왔다. 전국의 주요 사찰들이 땅을 기부하고 부처님의 정재를 출연하는가 하면 수많은 불자들이 발전기금을 희사하면서 불교종립대학의 자궁심을 지켜왔다. 전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침 건학위원회가 새로 출범했으니 이제 동국정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높이 세울 시기가 되었다.

무엇이 동국정신인가. 만해 한용운스님의 삶 자체가 동국정신의 상징이다. 만해스님이 3.1운동 만세 사건으로 인해 옥중생활을 하면서 쓴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1919. 7. 10.)에 “자유는 만유의 생명 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라 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세계시민 현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자유와 생명과 평화와 행복은 동국정신의 가장 깊숙한 형이상학이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현대철학적 변용이며 교육적 가치로도 아름답다.

이 개념의 큰 나무 그늘 아래 자존, 지성, 정의, 용기, 애국, 이타행(利他行)의 여섯 가지 실천윤리를 설계할 수 있다.

하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동국정신이다. 비판과 게으름과 비굴함은 자존의 부족에서 오는 병증이니 떨쳐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시기 직전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의 요체이니 교육적 버전으로 바꾸면 학업이수와 인성함양의 필수조건이다.

둘, 정확한 지식과 따뜻한 지혜가 동국 지성의 본모습이다. 남의 지식을 훔치거나 속이려 하지 말고, 옛것을 충분히 섭렵한 바탕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꽃피우는 게 동국다운 지성이다. 이는 정직한 태도이니 모름지기 인간 됬됨이의 기틀이다. 또한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니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셋,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정의로운 동국정신이다. 뜻을 바르게 세워야 길이 열린다. 이 바탕 위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여덟 가지의 실천윤리(팔정도)와 여섯 가지의 지혜로운 삶(육바라밀)을 실천하면 현대사회에서의 정의의 가치에 어긋남이 없다. 요즘 우리사회의 이슈인 공정성도 정의의 동국정신을 구현하면 해결된다.

넷, 용기는 동국정신의 대장군이다. 불의를 떨치고 일어나 정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행동이 바로 용기다. 일제에 항거한 청년학생들이 동국의 선배요, 4.19 혁명의 선도에서 피 흘린 이들이 그 선배들의 후예였다. 만해스님은 청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하늘과 땅을 돌아보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옳은 일이라 하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비록 그 길이 가시밭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말라.”

다섯,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동국정신의 자랑이다. 만해스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승리하고 남북통일을 통해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는 꿈을 가지는 게 동국정신이라 말씀하실 것이다. 뼈에 새겨 명심하라. 민족번영과 국가발전은 선조들의 비원이며 5천 년 역사의 지향점이다.

여섯, 생명공존의 가치를 자각하고 실천하는 게 동국정신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타행이자 만해정신의 꽃이며 불교종립 동국대학교가 추구해야 할 우주적 차원의 실천 덕목이다. 이로써 동국인은 세계인의 모범이 되고 지구 생명공동체의 지도자로 커나갈 것이다.

만해스님과 동국정신을 생각하매 이제 무엇이 두려운가. 웅혼한 기상과 냉철한 지성과 씩씩한 용기를 가진 동국인은 아무 두려움이 없고 무한정 자유롭다.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동국정신과 함께 한다. **정각도량**

동국인의 표상, 만해 스님

김광식 | 동국대 특임교수

동국대 역사에 2021년은 특별한 내용으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동국대를 상징하는 불멸의 동국인인 만해 한용운에 대한 새로운 한 페이지가 ‘동국대 역사’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역사는 4월 19일, 만해를 사랑하는 독지가(한양스틸프라자 대표, 이근창)가 만해아카이브 구축사업에 10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한 것이다. 두 번째 역사는 6월 29일, 만해의 추모 다례재를 개교 이래 최초로 동국대 정각원 법당에서 개최한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접하면서 그 현장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당사자로, 동국대에서 만해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필자는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그 많은 생각을 여기에서 다 풀어 놓을 수는 없다. 다만 몇 가지의 단상을 옮겨보고자 한다. 필자와 만해와의 인연은 다양하지만,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다. 그해 9월 10일, 독립기념관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주최로 만해의 ‘조선독립의 서’(조선독립의 감상의 대요) 비석의 제막식이 열렸는데 필자는 그 현장에 있었다. 그곳에서 만해스님의 따님을 처음으로 만났다. 그리고 백담사에 만해기념관을 세우고, 만해마을을 조성하면서 만해축전을 주관하고, 만해마을을 만해의 출신 학교인 동국대에 기증한 오현근스님(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여러 일을 했다. 그래서 지난 20년 간 백담사와 만해마을을 수없이 오고 가면서 만해의 일을 했다. 만해와 함께 한 20년의 세월이 영화의 필름처럼 스친다.

만해마을이 동국대에 기증됨을 계기로 동국대에 만해연구소가 생기고, 만해학 강좌가 개설되자 필자는 만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밖에도 만해와 관련된 인연, 비사는 많지만 언제인가 기회가 되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생략한다. 이런 감상을 느끼면서 이번 기회에 동국대에서의 만해사업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동국대에서 만해 강의는 지속되어야 한다. 필자는 현재 동국대(서울)에서 만해의 생애와 사상, 만해와 불교 독립운동, 만해와 근대지성, 근현대 고승열전이라는 강좌를 강의하고 있다. 이 강좌는 필자의 주 전공 분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만해가 동국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됨을 보고 있다. 이런 반응은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 자부심은 충실한 학교생활, 졸업 후의 학교사랑, 만해정신 따라가기로 이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세월은 가고 사람도 가는 법, 불교의 제행무상이라는 진리처럼 필자도 어느덧 60대 중반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것은 필자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는 누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강의는 논문 한두 편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과 주제에 대해 10년 이상

고민을 하고 관련된 이력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학교 당국에서 만해강좌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동국대의 만해 행사에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만해의 추모 다례재가 만해 입적, 77년만에 처음으로 동국대에서 개최되었다. 실로 눈물겨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만해에 대한 추모 행사는 다양한 곳에서 있었다. 우선, 그의 고향 생가터에 세워진 사당에서 흥성의 만해기념사업회와 흥성문화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치르고 있다. 그리고 만해가 10년간 활동한 무대이었던 선학원(서울, 안국동)에서도 치르고 있다. 또한 만해가 인생의 마지막 삶을 보낸 심우장(서울, 성북구)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방공간, 1960~70년대에는 만해를 만났고, 만해의 정신을 알았던 사람들이 불교계 및 조계종단 중심부에 많았다. 그래서 추모 행사가 조계사에서 열렸다. 그때 만해의 추모행사에는 조계종단의 종정스님, 총무원장 스님, 종단 간부 스님,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참여했다. 주목할 것은 1960~70년대의 만해 행사에는 대학생과 청년이 무척 많았다는 점이다. 그 시절 전국 대학교 불교학생회의 학생들은 만해 강연을 들었고, 만해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런 행보는 대한불교청년회도 유사하였다. 불교청년들은 만해를 그들이 존경하는 선배로 인식하고, 만해 배우기를 활동의 좌표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인연처였던 동국대에서는 강연회는 있었지만, 의식을 갖춘 학교 차원의 추모 행사는 없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을 유의하면서 앞으로 동국대에서의 만해 추모행사에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학생이 있는 후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는 연후에 졸업생과 교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셋째, 만해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 만해의 업적, 문학 등 다양한 행적을 보면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많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만해아카이브 사업을 하고, 그를 세계적인 언어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만해평전을 영어로 보급해야 한다. 이런 구도에서 만해대상을 25년째 시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만해사업의 세계화에 동국대가 중심에 서길 당부드린다. 우리 한국인은 만해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중고등학교에서 만해의 시를 배웠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해 문학의 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국 수십 개 처에 만해의 시·어록비가 있고, 만해박물관이 몇 군데 있다. 만해마을과 같이 종합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대상화 된 인물은 만해가 유일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전세계에서도 희소한 사례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만해에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국대의 구내에 만해동상을 건립하자고 제언한다. 현재 동국대 안에는 만해시비, 만해광장,

그치지 않는 종소리, 만해 한용운

이혜선 | 시인

만해관 등 만해와 연고가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러나 만해시비 이외에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해를 동국대를 상징하는 인물로 내세우려면 그에 걸맞은 조형물이 절대 필요하다. 동상 건립은 현재 동국대가 추진하는 사업(만해축전, 만해대상, 만해마을, 연구소, 강좌 개설 등)의 정체성 정립에 도움이 된다. 동국대 본관 앞에 있는 광장의 적절한 공간에, 동국대 출신의 조각가가 만든 동상을 세우면, 학생들은 그 동상을 보고 만해정신을 매일 매일 생각할 것이다. 1973년, 각 대학의 불교학생회에 소속된 학생들은 만해동상을 세우기 위하여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만해 전집을 팔았다. 그 판매 이익금을 모아서 만해동상을 세우기 위해 맘을 흘렸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때 그 대학생들이 이제는 70대가 되었다. 그 70대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상의 제막식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이상으로 동국대에서의 만해사업이 특별했던 2021년의 8월 15일, 뜨거웠던 광복절을 보내면서 슬며시 떠오른 몇 가지 생각을 들추어 보았다. 이런 단상이 동국인의 가슴에 한번쯤 되새겨지길 바라면서. **정각도량**



못 생명 키우는 물길로 오시는 님
큰 강물이 메마른 겨레밭을 적셨다

우레보다 더 큰 침묵으로 와서
눈 먼 나를 흔들어 깨우던 죽비소리

절망에서 희망의 샘물 피부어주시는,
이별에서 만남을
가시덤불에서 낙원을
예토穢土에서 정토淨土를 살게 하시는,

이지러진 겨레의 어깨
사랑으로
죽음으로 일으켜세운 님

눈 속에 날리는 복사꽃잎
행인을 기다리는 나룻배
오늘도 애국가, 소나무로 우뚝 서 있는 님을 만난다

그치지 않는 종소리를 듣는다 **정각도량**

* 만해 한용운의 시와 제목을 일부 변용함



이혜선 약력 1981년 『시문학』추천. 문학박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문체부 문학진흥정책위원. 시집 『흘린 술이 반이다』 『운문호일환(運門好日)』 『새소리 택배』 『神 한 마리』 등. 저서 『이혜선의 시가 있는 저녁』 『문학과 꿈의 변용』 등. 세종우수도서 선정(2016). 윤동주문학상, 예총예술문화대상, 동국문학상, 문학비평가협회상(명륜) 외 다수 수상. 동국대 외래 교수, 세종대 강사 역임. <항가사회> 동인

근대인 한용운과 한시漢詩

김종인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인물에 대해 단정하기 좋아한다. 때로는 그 인물을 이상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악마화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아무 보잘 것 없는 무의미한 존재로 치부한다.

한용운에 대한 우리의 단정은 이상화에 가깝다. 한용운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영웅이요, 혁명적 영웅이다. 물론 드문 경이이기는 하나 한용운을 악마화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용운은 승려대처론을 주장한 까닭에 보수적인 당대의 승려들에게서 불교계의 마구니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인식하는 이들의 처지가 서로 대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동일한 사람이 한용운을 모순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한용운은 생존시부터 줄곧 한국인의 문화적 영웅이요, 혁명적 영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가 한국 인문학계에서 근대성에 대한 이해가 유행하면서, 한용운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근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한용운의 행적과 저술 속에는 그를 근대인으로 보아야 할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 그리고 이 근거들은 이상화된 한용운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거기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근대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근대인은 신화와 전설 속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근대인들은 신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도 신화적인 존재가 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탈신화화한 근대인 한용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한국문학사에서는 전근대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한시가 근대인 한용운의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용운은 상당한 양의 한시漢詩를 남겼다. 현재 176수가 전한다. 편수로 한용운의 문학을 대표하는 님의 침묵의 88수 보다 약 두 배 이상 많은 양이다. 종합적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한용운은 수필, 논설, 논문, 주석서, 시, 시조, 한시,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썼다. 그런데 이 다양한 장르 중에서 한시는 가장 오랜 시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쓰였을 뿐 아니라, 사상적 틀과 지향점에 의해 추상화되거나 가공된 정도가 가장 덜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한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탈세속적인 불교 승려나, 불굴의 독립운동가 한용운이 아니라, 인간 한용운의 모습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다. 『한용운전집韓龍雲全集』에는 137편의 한시가 실려 있는데, 이중 그리움, 쓸쓸함, 한탄, 외로움, 향수의 정조를 표현한 시가 68편이나 된다. 이들 시에는 이러한 정조를 의지나 종교적 신념으로 극복하려는 뜻이 없다. 다음

은 이러한 정조를 드러내고 있는 시 가운데 하나이다.

自笑詩癡

詩瘦太酣反奪人 한창 나이건만 詩로 시들어
紅顏減肉口無珍 홀쭉해진 볼에 입맛도 없네
自說吾輩出世俗 세속 떠난 몸이라 자처하나
可憐聲病失青春 청춘을 삼킨 詩癡이 애석구나

시 어디에도 그를 초세속적인 인간으로 보게 만드는 선사의 기백이나 독립투쟁의 영웅으로 보게 만드는 투사의 의지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 문약한 시인의 자조만이 가득하다. 문약한 시인이 근대인의 표상은 아니다. 문약한 시인의 자조는 교조적 이념에 집착한 신유학자들이 지배한 시대를 제외하면 동아시아 문화사 전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한용운의 모습은 어떠한 논리로도 이상화하기 힘든 필부의 모습이다.

思鄉

歲暮寒窓方夜永 세모 추운 날씨에 밤은 길어서
低頭不寐幾驚魂 잠 못 들고 뒤척이며 몇 번 잠깨니,
抹雲淡月成孤夢 구름 걸린 고요한 달 꿈은 외로와
不向滄洲向故園 창주滄洲 아닌 고향으로 마음 달리네

이 시는 추운 겨울 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멀리 여행지에서거나, 아니면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연에서 셋째 연까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흥미로운 것은 네 번째 연이다. 달을 보며 고향으로 마음이 달린다고 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창주滄洲 아닌 고향”으로 마음이 달린다고 말하고 있다. 창주는 바다 속 신선의 땅으로서 이상향을 가리킨다. 이상향인 창주가 아니라 고향을 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승려인 한용운에게서 이상향이란 깨달음의 증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고향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향은 과거의 미화된 기억에 둔 현실의 이상향이다. 고향은 그러나 현실 속의 이상향이지만, 시에 등장하는 고향이란 갈 수 없는 곳이다. 갈 수 있는 고향이라면 그리워할 이유도 없고 그리움의 상징으로 시에 등장할 까닭이 없다. 고향이란 상실된 본원이다.

한용운은 고향을 잃은 나그네의 의식을 표현한 많은 시를 지었는데, 한용운의 나그네 의식은 전통적 세계와 세계관으로부터 떠나 온 데서부터 형성된 것이다. 한용운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였다. 그는 전통세계에 대한 회의와 근대문명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떠난 것만으로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고향을 떠나서도 어딘가에 정착할 수 있다. 그러나 한용운은 정착하지 않았다.

그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나, 승단에 소속감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중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해외로 떠돌고 서울을 배회했다. 그는 만년에 재혼하여 세속인으로 성북동 심우장에 머물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 그는 생애 대부분을 나그네로 산 셈이다. 그가 이토록 배회한 것은 불운한 탓에 자신의 삶을 뿌리내릴 근거지를 찾지 못한 때문이 아니다. 그가 승단에 뿌리박지 못한 것은 스스로 승단의 전근대적 정체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승단의 전통적 가치관을 부정했고 전통적 삶과 신행 양식을 부정했다.

그는 승려였지만 승단이 영원한 귀의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참선을 했지만 생로병사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체험적으로 믿지도 않았다. 한용운은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떠나 뿌리를 잃은 근대인의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전통의 가치체계와 세계관을 부정할 뿐 아니라 감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지식세계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는 근대인이다.

卽事

烏雲散盡孤月橫 먹구름 흩어져 둥근 달 비치니
 遠樹寒光歷歷生 멀리 숲에는 찬 빛이 생생하고,
 空山鶴去今無夢 빈산에 학도 떠나가 고요한데
 殘雪人歸夜有聲 잔설 밟고 가는 이의 발소리 뿐.

시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다. 본 대로 느낀 대로 쓴 시이다. 시는 시인의 눈에 비친 그대로의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멀리 숲이 있고, 학이 떠나고, 구름이 흩어지면서 달이 비친다. 구름과 달은 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명과 깨달음을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마음속의 일이 아니라 자연의 풍광이다. 이 풍광에 대해 느낌이 있었겠지만, 특별한 느낌은 아니다. 아무런 과거의 추억을 연상시켜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염려나 희망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시인은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자연대로 시인은 시인대로 존재한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원리적 통일성이나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만 있을 뿐이다. “먹구름 흩어져 둥근 달 비치니 멀리 숲에는 찬 빛이 생생하고”를 앞서 인용하였던 님의 침묵에서의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과 비교해보자. 둘 다 하늘의 검은 구름과 구름 사이의 맑은 하늘을 대조한 것이지만, 전혀 다른 시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자의 구름과 달은 그저 객관세계로서의 조용한 풍경일 따름인 반면에, 후자의 구름과 하늘은 역사 현실과 연동된 우주적 원리의 발현이다.

이처럼 한용운은 한시의 전통적인 소재들로 한시를 지었고, 또 매우 일상적인 감성을 가지고 이들

소재를 대하고 있다. 옥중시를 포함한 몇몇 시를 제외하면 소재 채택이나 표현상에서 혁명적 정신의 소유자로서의 한용운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다.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전통적인 지식인, 그런 의미에서 혁명적이기보다는 흔히 유학자라 불리는 온건하면서도 보수적인 전통적 지식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격정적 감정과 열망을 노래한 님의 침묵의 시인 한용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님의 침묵과 한용운의 한시는 전혀 다른 정신세계이며, 한용운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가졌던 것인가?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님의 침묵과 그의 한시들은 너무도 다른 정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에는 공통된 점이 있다. 양자 모두 한용운이 평생 동안 갈구한 바를 노래하고 있다. 다만 그 갈구하는 바를 님의 침묵에서는 매우 강렬한 형태로, 한시에서는 담담하고 어느 정도는 체념적으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님의 침묵은 이별한 님을 노래한 시인데, 이별한 님은 상실된 존재의 본원本源이다. 한용운이 독립운동가인 탓에 ‘님’은 곧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상기시키지만 ‘님’을 조국으로만 규정해버리면 ‘님’의 근원적 의미를 포착하는 데 실패하고, 한용운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다. 조국은 한용운이 찾고자 한 존재의 본원의 다양한 현상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한용운이 찾고자 했던 것은 상실한 존재의 근원적 본원이었으며, 그것은 종교적으로는 부처로 상징되고, 정치적으로는 조국과 민족으로 상징되고, 시적으로는 연인으로 상징된다. 부처, 민족, 연인은 그 속에서 한용운이 존재의 본원으로부터 분리된 삶의 불완전성, 내지는 결핍으로 인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의 본원의 현상 형태들이다. 그가 한시 속에서 추구한 것 역시 어떤 결핍감과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정각도량



무엇을 기뻐하라

안양규 |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내가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대학교 2학년 2학기 말이었다.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불교 및 불교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지만 불교 공부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2학년 2학기 중강할 때 한 교수님의 소개로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싯달타(Siddhartha)를 겨울 방학 동안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불교 공부에 내 인생을 바쳐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불교를 공부하면 내가 청소년 시절 품었던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일생을 돌이켜 보면 나에게 불교가 깊이 각인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그 당시 불교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이라곤 어머니가 절에 오가고 하는 모습이었다. 기독교에 대해 이런저런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들은 것이 있었지만 불교에 대해선 정말 무지하였다. 훗날 알게 된 것이지만 내가 최초로 접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하희하소何喜何笑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라
명상치연命常熾然 목숨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심폐유명深蔽幽冥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불여구정不如求錠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어릴 적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인 것 같다. 어머니가 인근 암자에서 가져온 달력 밑 부분에 적힌 구절이다. “무엇을 기뻐하라,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라는 구절은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사라지지 않았다. 나중에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 구절이 범구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읽을 때마다 어릴 적 처음 감동 받았던 느낌이 되살아난다. 그 당시 비록 나의 나이 어렸지만,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의미하게 보였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웃음으로 가득 차지만 진정 저런 것들이 전부일까? 죽으면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 저런 것들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념에 빠져 있던 나는 “무엇을 기뻐하라”라는 구절을 보고 공감할 수밖에 없었다.

재물, 권력, 성적 대상 등 감각적이고 물질적 대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수명이 점차 타들어 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첫째 시구와 둘째 시구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무상無常한 것을 추구하면서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나머지 2개의 시구는 무명無明, 즉 어둠 속에 빠져있으면서 광명을 찾을 줄 모르고 있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빛을 찾

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악업의 근원에는 무지無知가 도사리고 있다. 무지, 즉 어둠에 덮여 있으면 동서남북 사방을 분간할 수 없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무지 속에서 탐욕이 채워지면 웃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이 시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일단의 여인들이 몰래 술을 먹고 부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인들이 취기에 못 이겨 노래하고 춤추고 싶었다. 마라(Mara) 즉 악마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여인들에게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사원에서 요란스럽게 노래하고 뛰다니며 춤추게 했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검푸른 광선을 내어서 사방을 어둡게 만들자 여인들이 놀라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백색 광선을 내보내자 하늘이 수 천 개의 달에 밝혀진 것처럼 밝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취해 나의 절에 왔기 때문에 마라가 기회를 잡아 절에서 그대들로 하여금 부끄럼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크게 웃고, 큰소리로 노래 부르며 소란을 피우게 했다. 이제 그대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불을 꺼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승으로 다시 요약하여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술을 마시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몽롱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하게 된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계시는 사원에서 크게 웃고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춘 것이다. 술에 취하면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사방도 분간 못하고 심지어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술에 취한 것처럼 탐욕이나 분노에 취하면 마음이 무지하게 되

어 온갖 악업을 지어 고통에 빠지게 된다. 탐욕의 술에서, 분노의 술에서 취한 채 악업을 짓지 말고 깨어나라, 이는 등불, 즉 지혜를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며 이런 물질의 획득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행복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이익을 내면 기뻐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뻐하고, 유명 브랜드의 외제차를 구입하면 기뻐하고, 승진하거나 취업하면 기뻐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다이어트로 몸무게가 줄어들면 기쁨을 느낀다.

부처님께서 일시적 쾌락의 위험을 우화로 가르치고 있다. 어린 소가 어미 소에게 우리는 밭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저 돼지는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자고 한다고 불평하였다. 어미 소가 어린 소에게 돼지가 지금 음식을 꿀꿀거리며 먹으며 행복해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행복은 무상한 것으로 곧 사라지니 우리의 목숨이 아깝다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소중한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한한 생명, 하루하루 짧아져 가는 수명을 생각하면 진정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불교를 전공으로 하여 배우고 연구하며 가르친 것이 이제 37년 정도 되는 것 같다. 경전을 읽기 위해 한문, 산스크리트, 팔리어를 배우고 일본어나 영어로 쓰인 불교 논문이나 저서를 널리 읽어 왔지만 어릴 적 한글밖에 몰랐던 초등학교 시절, 접한 부처님 말씀이 여전히 감명을 주고 있다. **정각도량**

바른 믿음은 수행의 요체

이필원 |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불교라고 하면 믿음이 약하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불교는 일반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와 달리, 믿음을 수행의 요체로 삼는다. 수행의 종교인 불교는 달리 믿음의 종교이기도 한 것이다. 흔히 믿음은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초기불교에서부터 믿음은 정말 중요한 덕목이자 토대이다. 토대는 건축물을 튼튼하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떠받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처음 입문할 때면 누구나 ‘삼귀의三歸依’라는 것을 한다. 삼귀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록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기록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기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하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기록한]이란 말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문에도 이 말은 없다. 부처님과 그 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출가수행자들의 모임은 그 자체로 이미 ‘기록한’이란 형용사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이다. 굳이 사족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삼귀의는 불법승佛法僧 삼보를 의지처로 하겠다(귀의)는 자기 맹세이자, 선언이다. 이러한 삼귀의가 온전하게 선언되지 않으면 ‘불자(부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올바른 믿음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맹목적인 믿음이 자신과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면, 올바른 믿음은 자신과 세상을 이익 되게 하며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확장하는(離苦得樂)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먼저 부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경문을 살펴보자.

마하나마여, 어떻게 고귀한 제자가 일곱 가지 진실된 가르침을 갖추 수 있겠습니까? 마하나마여, 세상에서 고귀한 제자는 믿음(saddha)을 갖추니다. 여래의 깨달음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시며, 지와 행을 갖춘 분이시며,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아는 분이시며, 위없는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이시다.’라고 믿음을 갖추니다.(『맛지마니까야』 「세카숫따(Sekha sutta)」)

경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부처님의 덕성과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믿음만이 단독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채찍을 본 준마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용맹을 일으켜라. 믿음, 계행, 정진과 집중, 법에 대한 고찰과 명지와 덕행을 갖추고, 깨어있음(sati)을 확립함으로써, 그대는 커다란 괴로움을 극복하라.(『답마빠다』, 144)

불교에서 계행이란 도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행을 갖추지 않은 믿음은 폭력성을 띄게 된다. 또한 법, 즉 가르침에 대해 고찰하고, 명지와 덕행을 갖추며, 깨어있는 의식이 확립될 때, 그 믿음은 괴로움의 뿌리를 제거하는 힘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삼귀의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귀의’는 다른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가 올곧게 확립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바른 수행자들의 모임에 대한 믿음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귀의법, 귀의승은 귀의불 하나로 수렴된다. 즉 삼귀의의 내용이 각각 별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것이라 다른 두 가지를 포괄하는 믿음의 구조인 것이다.

삼귀의의 내용은 다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으로 이어진다. 자등명(自燈明, attādīpa)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등불을 디빠(dīpa)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디빠에는 섬(island)이란 의미가 더 강하다. 망망대해에서 섬은 우리들이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래서 자등명은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등명(法燈明, dhammadīpa)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자등명 법등명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익히면 나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바른 확신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탈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걸음으로써 깨달음을 실현하는 자이다. 이것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할 바가 있을까.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믿음은 빨리어 샷다(saddha)를 번역한 말이다. 이를 ‘확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확신이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성을 통한 숙고의 결과이다. 『앙굿따라니까야』에 『까라마숫따(Kāḷāma sutta)』에는 이러한 이성적 숙고를 통한 확신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 경전에서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거나, 혹은 소문이나 대대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혹은 성전에 쓰여있다고 해서,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이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스승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부처님은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현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받들어 행하면 이익과 행복이 있게 된다고 알게 되면 그 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권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이익과 행복’에 대한 확실한 앎에 근거하여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한 점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즉, 불교에서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성으로 숙고되고, 실제 그 내용을 실천하여 이익과 행복을 스스로 체험하여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믿음’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의 ‘믿음’은 수행의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진각도행**

With 코로나시대에 자비심 발현과 아동복지 실천

이은주 | 경주캠퍼스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시대의 보편화라고 볼 수 있다. 비대면 사회는 이전부터 예견되었지만 COVID 19으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도입되었다. 초등학교까지 비대면 화상강의가 주요 강의방법으로 채택되었으며, 주요 기관 회의는 화상으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COVID 19으로 거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사회의 부정적 영향의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들은 비대면 사회에서 발달적으로나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든 아동들이 경험하는 심리 정서적 문제는 또래와 교사와의 상호작용부족으로 그 시기에 습득해야 할 사회화 과정을 적절히 배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아동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음으로써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나 교사와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하게 된다. 특히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따라 형성된 정서적 관계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또래와의 놀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아동들의 언어수준과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등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금과 같은 비대면사회가 일상화 되면서 특히 아동 인지발달이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아동 평균 지능이 100에서 78로 낮아진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아동문제는 아동학대의 증가이다. 아동학대 주요 행위자의 80%는 친부모인데, 코로나로 인해 바깥출입이 거의 금지되고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집안에서 발생하는 학대상황을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가정의 경우 부부사이의 갈등상황이 고조되거나 가정폭력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아동들이 학대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사나 보건의사 등 외부 보호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상황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은 외부에서 아동들이 집에서 어떻게 보호되고 양육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최악의 경우 정인이나 인천 라면형제사레처럼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사건으로 발견되고 있다.

우리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던 몇 건의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하였다. 먼저 62년 만에 민법개정으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여 법적으로 아동체벌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사랑의 매'는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학대받은 아이들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즉각 분리제도'를 제도화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부모들의 '내 아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2020년 10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공공기관에서 학대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원을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학대대응체계의 공공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진다면,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관련 법 개정이나 학대조사의 공공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제도' 이후 학대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 보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피해아동들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외국의 경우 만 18세까지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반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 학대피해아동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치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반가정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부모가 현저히 부족하여 많은 학대피해아동들이 시설로 보내져서 가정과 다른 낯선 환경을 경험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자비'라고 생각한다. '자비(慈悲)'의 의미를 찾아보면, "자(慈, 산스크리트어 maitri)는 남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뜻, 비(悲, 산스크리트어 karuṇā)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 준다는 뜻.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 고통을 덜어 주고 안락하게 해 주려는 마음¹⁾", "철저한 무아사상(無我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중생에게 실제로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며, 근본적으로 그 근심 걱정과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어 주는 지극한 사랑²⁾", "자비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인데 '자'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평온함을 주려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사람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려는 마음³⁾"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해결해주려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동복지는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고아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하였는데, 자비로운 마음과 보살핌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실천의 목적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비심을 일으켜 학대받은 아이들과 같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화된 COVID 19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 부모가 된다면, 아동복지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불국토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정관도향**

1) 시공 불교사전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자비慈悲)

3) 불교신문[2263호/ 2006년 9월20일자],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

인도철학에서 본 불교의 수행

심준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불교는 깨달은 자라는 buddha(佛陀)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불교에서 깨달음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연기법, 무아설, 4성제, 중도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을 경전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인 32분은 응화비진분應化非眞分인데, 나타난 것은 진짜가 아니란 뜻이다. 그리고 이 32분에 나오는 금강경을 종결하는 유명한 4구개는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으로 모든 나타난 존재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 금강경을 통해 볼 때 불교의 깨달음이란 우리에게 드러난 이 현상이 꿈의 존재론적 위치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 응화비진과 몽환포영의 입장은 금강경 곳곳에서 계속 강조된다. 예를 들어 금강경 31분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아녹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낸 사람, 즉 진리를 깨달으려고 마음을 낸 사람은 존재에 대해 어떤 상(생각, 혹은 분별)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존재로 생각되는 것은 진짜 그 존재가 아니라 단지 그 명칭만이 있을 뿐이라고 설한다. (所言法相者 如來說卽非法相 是名法相)

얼른 다가오지 않는 내용이라 예를 들어 본다. 누군가 손이 무엇이나라고 물으면 주먹을 쥐어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은 손이 아니라 주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엔 손을 펴서 보여준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것은 가위바위보의 보인 것이지 손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가위 모양으로 손을 보여준다. 그래도 역시 그것은 가위이지 손이 아니라고 한다. 계속 손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은 상(생각, 언어분별)에 사로잡혀 손을 보지 못한다. 손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손이라는 진리를 보려면 가위, 바위, 보라는 존재가 단지 분별이고 명칭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분별 중에 가장 큰 분별이 있음과 없음이란 분별이다. 있음과 없음의 분별이 없으면 생로병사는 무엇이고 해탈은 무엇이고, 무명은 무엇이고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5조에게 받은 의발을 빼앗으려 대유령 고개까지 쫓아 온 헤메스님에게 6조는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의 본래 면목을 물었다. 반야심경은 알 바도 없고 얻을 바도 없으며,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고, 뒤집힌 꿈과 생각에서 멀리 떠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최소한 금강경에 따르면 불교의 깨달음은 명칭에 따른 분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명칭에 따른 분별에 잡히지 않을 때 주먹을 보면서 손을 보게 된다. 또 가위를 보면서 손을 보게 되고 보를 보면서 손을 보게 된다. 이쯤 글을 잘 따라왔다면 왜 꽃을 들어 올리는 부처님을 보고 가섭존자가

방긋이 웃었는지, 소동과가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 설법이며, 산색이 어찌 본래 부처님 법신이 아니겠는가”(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라고 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일 뿐이다. 이해에서 그치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묘한 심경을 맛보고 확연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분별의 습이 남아있는 한 시간이 지나면 습이 발동하여 다시 확고한 진리를 찾게 된다. 가위바위보가 바로 손임을 이해하고 심지어 가위바위보라는 명칭에 매이지 않는 상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이라는 진리의 법상, 진리라는 명칭에 사로잡혀 헤매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깨달음에는 법상을 깨뜨려 줄 선지식이 필요불가결하다. 분별은 매우 미세하여 사실 분별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도 선지식 문하에서 보림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가 불퇴전에 이를 때까지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바른 입장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제 인도철학에서 유사한 일례를 들면, 쉬바파 불이론(카쉬미르 샤이비즘)은 수행자의 깨달음의 단계를 3종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수행을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아직 모르고 가위바위보의 명칭의 세계가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즉 세계를 유무, 고락, 생사 등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삼천배, 진언, 육체적인 요가나 고행, 예배, 기도 등의 인위적인 수행이 권장된다. 둘째 단계의 사람은 가위바위보가 단지 명칭이고 생각일 뿐임을 아는 사람이지만 아직 무분별, 즉 불이의 체험은 얻지 못한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해오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혹은 불이의 체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혜의 힘이 약하여 다시 이원론적 사고 속으로 빠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청정한 분별을 수행해야 한다.

청정한 분별이란 비록 분별이지만 이원론적 분별을 약화시키는 분별이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가 단지 명칭이고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듯, 모든 이원론적 사고나 분별이 그대로 진리의 현현이라는 진리를 계속 상기하는 것이다. 이원론적 사고나 분별이 그대로 진리의 현현이란 진리도 그것이 하나의 생각일 때는 그것 역시 분별일 뿐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청정한 분별은 이원론적인 분별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청정한 분별은 마치 나무가지를 태우기 위해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에 불쏘시개마저 태우듯 청정한 분별 역시 마지막엔 놓아야 한다. 셋째 단계의 수행은 무분별, 즉 불이의 체험 그 자체이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수행이 필요 없다. 쉬바파 불이론의 거장인 10세기 아비나바굽타는 이 사람들의 상태, 혹은 수행에 대해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현재인 그대의 본질 속에 거하라”고 하였다.

불교 내적인 관점에서만 불교의 수행을 바라보다 불교 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교를 전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다. 예컨대 불교의 돈점 논쟁도 쉬바파 불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각도량**

시절인연이 정해 준 공양

안필섭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강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며, 그 한계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누구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약으로만 여기지 않고 슬기롭게 이용하는 것 또한 삶의 지혜라고 하겠다. 불교에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표현한다면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중국 명나라 말기의 승려 운서주평(雲棲株宏: 1535~1615)의 책 『선관책진(禪關策進)』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때가 되어 인연이 오면 저절로 철컹하며 들어맞아 단번에 깨우쳐 갈 것이다.
時節因緣到來。自然觸著磕著。噴地醒去。

업이 영글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시간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현생에서 결과가 나타나는 업이 있는 반면, 내생에 받게 되는 업이 있다. 경우에 따라 여러 생에 나누어 받아야 하는 업도 있다. 이처럼 업에 의해 모이고 흩어지는 인연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말이 시절인연이다. 그런데 이 말을 달리 생각해보면 때가 되지 않아 인연을 붙잡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을 억지로 이루지게 하려면 저절로 철컹하며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빼격거리며 소리를 내다가 부서진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한계를 점차 무너뜨리기 위해 힘을 쏟는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분...
아~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열차

1959년 가수 안정애가 처음 불렀고, 1980년대 가수 조용필이 다시 부르면서 크게 유행한 노래 〈대전부르스〉의 가사 중 일부분이다. 남녀의 인연을 기차의 운행과 연결해 애환을 노래한 이 곡에 등장하는 '목포행 완행열차'를 필자 또한 대학 시절에 탑승한 기억이 있다. 서울역에서 20시 45분에 출발하는 이 열차는 0시 40분 대전역에 정차하여 10분을 쉬고, 0시 50분에 다시 대전역을 출발하여 새벽 6시에 목포역에 도착하였다. 그래서 '대전발 영시 오십분'이라는 노랫말이 생긴 것이



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무려 9시간 이상 걸리는 이 열차를 해남 대흥사를 가기 위해 대학 동기들과 함께 탔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요즘은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 20분이면 목포에 도착한다. 빨리 도착해 무척 편리하지만, 밤을 새워 달리는 열차의 불편함이 주는 그 시절 추억의 향기가 지 전해줄 리는 만무하다.

2014년 7월, 사찰음식 조사를 위해 경남 사천의 다솔사를 찾았다. 만해 한용운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남쪽나라의 정겨운 천년 사찰 다솔사에서 만난 스님. 스님께서 친절히 조사에 응해주시고는 음식 시연을 부탁한 필자에게 9월에 다시 방문할 것을 주문하셨다. 이유를 묻자 호박잎은 9월 초에 딴 것이 부드럽고 맛있다는 말씀이었다.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을 것만 같은 이름의 다솔사 '호박잎된장국'은 그렇게 다시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경주에서 사천까지 가서야 만드는 것을 직접 보고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월, 스님께서 만들어주신 호박잎된장국의 그 맛을 잊지 못해 집 근처에 작은 텃밭을 마련해 호박을 심었다. 여름이 되자 호박의 성장이 무서울 정도로 빨라졌고, 약간은 그 기세가 누그러든 9월초가 되어 부드러운 여린 잎을 따서 스님께 배운 방법으로 국을 끓였다. 그렇게 재현해 본 추억의 맛을 요사이 시중에서 사온 호박잎을 가지고는 그 맛을 내지 못하겠더라.

재료의 마련에서 조리까지 어느 한 순간도 어긋남 없이, 시절인연이 정해준 이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사찰음식이다. 거기에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때가 되어 땅이 허락한다면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면서 소리가 나듯이 건강하면서도 소박한 공양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우리 불제자들의 삶에도 다를 바 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도록 놓아두지만 말고 착실히 준비한다면 때가 되어 깨달음의 인연은 단번에 찾아올 것이다. **정각도량**

청량함을 품은 오대산을 꿈꾸며

혜성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월정사의 시작은 신라의 고승인 자장율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선덕왕(善德王) 때인 정관(貞觀) 10년(641)에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기 위하여 당에 들어간 자장은 오대산 태화지에서 7일간 기도하고 불사리와 가사를 얻어 신라로 들어와 통도사와 태화사에 봉안한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의 불교를 정비한 자장은 오대산을 향하였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편에는 “그대가 본국 동북방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고, 1만의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 그대는 가서 뵈도록 하시오.”라고 전하는데, 문수보살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이다. 자장은 선덕왕 12년(643) 오대산에 월정사를 창건하고 중대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조성하였다.

이후 오대산을 찾은 인물은 신라의 보천, 효명태자인데, 이곳에서 오만(五萬) 불보살 친견한다. 신문왕의 왕자였던 효명과 보천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던 가운데 오대 중 동대에서 1만의 관세음이 현신하여 상주하는 모습을 친견하고, 남대에서 1만의 지장보살을, 서대에서 1만의 대세지보살을, 북대에서 1만의 미륵보살과 아라한을, 중대에서 1만의 문수보살을 각각 친견하게 된다. 이후 효명태자는 경주로 돌아가 성덕대왕이 되었는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여 705년에 진여원(현재의 상원사)을 창건하였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범일국사에 의해 개창된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의 승려 신의(信義)가 오대산에 주석했다. 『삼국유사』 『대산오만진신』편에 ‘범일의 십대제자이며 두타승인 신의가 자장이 머물렀던 곳에 암자를 지어 주석하였는데 이곳이 월정사이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오대산은 자장의 문수 신앙과 보천의 오만 불보살 신앙, 신의의 선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아우르는 성지로서의 면모를 일찍이 갖추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오대산에는 특별한 문화적 가치를 함께 품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수록재의 가치이다. 조선의 개국과 함께 왕이 된 태조 이성계는 1398년 상원사에서 국행 수록재를 행하였으며, 1399년 11월 중대 사자암을 중수하고 자신의 원찰로 삼아 친히 참배하였다. 이는 조선 초기 승유역불의 정책이 펼쳐진 상황을 고려하면, 불교계에서 오대산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둘째는 한글 창제와의 관련성이다. 세종대왕 때에 훈민정음 창제에는 상원사에 주석중인 신미대사가 함께 하였다. 신미대사는 1461년 간경도감이 설치되자 불경의 한글 번역을 주도하였으며 한글의 정착과 보급에 이바지하게 된다. 월정사 박물관에 전시중인 국보 292호 『상원사중창권선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문서인데, 상원사와 세조 사이에 얽힌 인연과 사연을 보여주는 전적이다. 셋째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보관 장소로서의 가치이다. 『동사열전』에는 서산대사가 오대산에 주석했다

고 기록하고 있으며, 제자인 사명대사가 1568년 이후에 주석하였다고 한다. 사명대사는 스스로를 ‘오대산인’이라고 칭하며 영감암에 머무르는데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오대산사고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감암은 임진왜란 이후 새로이 지정되는 5곳의 사고지 가운데 하나로서 1606년에 설치되는데, 이때부터 월정사는 실록수호사찰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최근에는 일본에 강제로 반출된 실록과 의궤를 반환받으려 노력한 결과, 2011년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근·현대 오대산에는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두 분의 선지식이 주석하셨다. 두 분은 바로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이다. 한국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우는 경허대사의 제자인 한암스님은 한국불교 청정의 표상이었으며 엄격하고도 따뜻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한암스님은 일제강점기에 한국불교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는데, “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봄날에 말 잘하는 앵무새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27년간 산문 출입을 삼가며 수행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청정한 수행자로서의 표상이었던 한암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전신인 조선불교조계종의 종정에 네 차례 추대되었고, 해방 이후 일본불교의 흔적을 신속하게 지우는데 스님의 청정한 기상이 원동기 되었다. 한암스님을 찾아 상원사에 출가한 탄허스님은 한학에 능통하였으며 후학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화엄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의 번역과 해석에 매진하였다. 이때 번역과 교육을 받았던 스님으로 무비, 각성, 통광, 성파스님 등 현대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후학양성은 탄허스님이 현대의 한국불교에 남긴 가장 큰 족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오대산은 수행과 함께 역사, 문화, 힐링의 복합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다. 첫째, 오대산 산내에는 비구선원 3곳과 비구니선원 1곳 등 총 4곳의 선원이 있어 승가의 수행을 위한 공간이 이뤄져 있으며, 출가학교를 통하여 재가인의 수행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다. 둘째,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관점에서 영감사 오대산 사고지와 왕실의궤박물관, 성보박물관을 통하여 후대를 위한 기록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셋째, 오대산 초입에 조성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신과 육체의 휴식을 통한 힐링에 대해 불교적 전통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넷째, 선재길 걷기와 불교문화축전을 통하여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다양성을 융합하여 다양한 불교문화를 재창출에 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오래전 첫걸음을 할 때의 오대산 초입에서 일주문에 쓰인 월정대가람을 바라보며 느꼈던 청량함은 수행자로 살아가는 지금도 매번 초심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항시 정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오대산의 가풍이 자연스럽게 몸에 와 닿은 결과물이라. 오대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이들이 이런 청량함속에 일상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내려놓아 편안케 하고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게 하여 늘 행복하였으면 싶다. 오늘도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부처님께 고개를 조아려 본다. **정막도량**

감은사지 삼층석탑이 주는 감동

진욱 스님 |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강사



2021년 어느 비 오는 날의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나의 20대 초반은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였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갖 식발해서 스님으로서의 위의(威儀)도 익혀야 했다. 또한 어색하고 낯선 환경과 새로 만나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방황과 갈등을 반복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자신감이 없어 질 즈음, 무척이나 웅장하고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석탑 한 쌍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이었다. 감은사지의 두 석탑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순간, 내가 입을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나를 압도하는 두 석탑이 보란 듯이 의젓하고 여유 있게 내 앞에서 있었다. 그 모습에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나의 뇌리에 박혔고, 한동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제(機制)로 작용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불교예술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감은사지의 두 석탑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감은사(感恩寺)라고 하는 절터에 있는 두 석탑이다. 절은 사라지고 두 탑만이 이곳을 오랜 세월 동안 지키고 있다. 감은사지 입구의 안내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부처의 힘을 빌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동해 바다에서 경주로 가는 길목인 이곳에 절을 창건하였고, 이후 신문왕 2년(682)에 완성하였다. 문무왕은 “내가 죽으면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지내 달라.”라고 유언하였는데, 그 뜻을 받들어 장사지낸 곳이 대왕암이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하였다.”

감은사의 창건 설화와 절 이름의 유래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실제로 감은사지에서 조금만 동해 쪽으로 나가면 문무대왕릉이 감포 바다에서 당당하고 장엄한 자태로 지금도 우리나라와 우리의 동해를 지키고 있다.

감은사지의 동·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신문왕 2년(682년)에 완공되었다. 신라가 통일된 초창기의 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보다 일찍 건립되었다. 감은사 터의 동쪽과 서쪽에 나란히 서 있는 이 두 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조 쌍탑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쌍둥이 탑처럼 똑같이 보이긴 해도 동탑(13.3m)이 서탑(13.7m)보다 그 높이가 조금 낮다.

보통 석탑은 상륜부(相輪部), 탑신부(塔身部), 기단부(基壇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은사지 삼층석탑은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렸고, 그 위의 상륜부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는 철제 찰주(刹柱)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기세 당당한 석탑의 모습으로 보이는 데 일조하는 것 같다. 이 두 탑은 탑신부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층석탑이라고 불린다. 탑신석 모퉁이에 우주(隅柱, 모퉁이에 있는 기둥)를 먼저 세우고 각면에 1매의 판석(板石)을 끼운 것으로 보인다. 옥개석(屋蓋石)은 지붕 모양을 한 낙수면과 여러 층으로 보이는 옥개 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낙수면은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다가 끝부분에서 살짝 반전된 모습에서 목조 건축 양식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평을 받는다. 상하 2중 기단은 감은사지 석탑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방식으로 이후에는 우리나라 석탑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하층 기단의 우주와 탕주(撐柱, 우주와 우주 사이의 기둥)가 각기 다른 돌로 이루어져 있다.

서탑은 1959년에 발굴 조사하면서 해체 수리한 뒤 2007년에 다시 수리 복원하였고, 동탑은 1996년 해체 수리한 이후 2008년에 보존처리 하였다고 한다. 해체 수리할 때, 두 탑 내에서 각각 사리 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서탑에서 나온 사리 장엄구(보물 제 366호)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동탑에서 나온 사리 장엄구(보물 제 1359호)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국보 제 1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실, 감은사지 삼층석탑에 관한 소개 글은 어렵지 않게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상세하고 풍부한 지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림과 사진을 첨부해서 이해하기도 쉽다.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이번에 감은사지 석탑을 주제로 삼은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에 용기와 희망을 전해 주는 역할을 이 두 석탑이 톡톡히 해줬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이후, 강산이 세 번 정도 변한 지금, 고맙게도 나는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다시 경주를 오가는 일이 잦아졌고, 학교 캠퍼스를 비롯하여 나의 대학 시절과는 달라진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문득 감은사지의 두 석탑이 궁금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지인과 함께 감은사지를 향했다. 감은사 두 석탑의 장엄한 자태와 늙은 기상은 여전했고,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내 20대 초반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누구라도 삶이 힘들거나 어떤 일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감은사지를 방문하여 동·서 삼층석탑을 바라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 두 석탑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고, 어깨가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때가 온다면, 감은사지를 꼭 직접 방문했으면 한다. 그림이나 사진이 담아내지 못하는 기백과 압도하는 자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예술의 전공자가 아닌 내가 설명하는 감은사지의 석탑은 조금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다. 어떤 예술품이나 문화재를 가까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이야기가 그 속에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20대 초반, 방황과 갈등의 상황에서 이 두 석탑은 내게 위로와 힐링을 주었고 오랫동안 나의 삶 속에서 감동과 환희의 대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때도 여여(如如)한 그 모습은 다른 이에게도 무한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정각도량**

봉정암을 다녀와서

진영숙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간호부장

그래~! 봉정암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영화관, 공연장 못 가본지도 벌써 2년째다. 조심 조심 계획하던 대학친구들과의 여행도 생활속거리두기 4단계강화로 취소다. 근무지가 병원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고 방역수칙은 더 엄격하다. 작년에 이어 올 여름휴가도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야 할 상황이다. 그러다 퍼뜩 봉정암이 떠올랐다. 봉정암 순례 경험을 들떠서 말하던 직원의 빛나던 얼굴과 불자들의 간절한 기도처지만, 쉽게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말이 맞물려 마치 수미산 순례라도 되는 듯 설렌다. 허리디스크와 방사통이 염려되어 미리 진료를 보고 약도 준비한다. 설령 봉정암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백담사와 계곡 그 자체로 멋질 것이라는 생각에 준비하는 마음이 즐겁다.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 오랜만에 강릉 사는 친구를 만나고 동해바다를 보는 일정이다. 친구를 만나 중환자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꾼 한 후배간호사의 농담들이 생각났다. “간호사나 의사는 전생애 업이 많은 사람~!”이랄지 “심장이식 받은 환자가 수술 전 성격과 달라졌다고 말하더라. 아마도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성격의 영향일 거다”라던가, “환자가 거의 사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소생했는데 여쭙보니 ‘넓은 들판을 끝없이 헤매다가 강가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는데 뒤에서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애타게 불러 돌아왔다’라고. 그 간호사의 결론은 이렇게 이어진다. “아마 그 부르던 사람이 간호사일거다. 강을 건넜으면 큰일날 뻔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환자를 불러 줘야 한다” 라든지 등등. 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꽤나 황당해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 단지 농담일 뿐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단언하였지만, 지금은 어떤 이야기도 오계와 황금률에서 벗어나지만 앓는다면 나의 지식 프레임에 맞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이것이 맞고, 저건 틀리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되어 간다. 수십 년 전 의학교과서에 있던 허리디스크 운동요법이 도리어 악화시킬 수 운동으로 폐기되기도 한다. 명백할 것 같은 과학분야에서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미시적인 물질세계를 설명하고 현대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기술의 토대가 되는’ 양자역학도 물리학계에 받아들여진 것은 이 이론을 반대하던 과학자들이 수용해서가 아니라, 다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믿고 아는 인식 틀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난다. 영화 컨택트



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와 다르게 인식하는 외계인이나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5차원 이상의 세상이 있을지 모를 일이다. 불교와 접하면서 신비의 영역이 새롭게 다가오고 내가 간혀있는 매트릭스는 무엇인지 살피게 된다.

불교병원에 입사해 불교와의 인연이 깊어지고, 신행 활동에 참여하며 선방의 문고리도 잡아보고 수많은 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친견 기회도 가지며 감사한 일이 늘어간다. 내가 옳다는 나의 생각의 틀과 지식과 관념을 벗어나 오직 모를 뿐,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번에 만난 친구는 강릉에 병원이 생기면서 고향으로 직장을 옮겼고, 지금은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병원을 떠나게 했던 간호관리자로서 고민과 갈등이 나도 공감이 된다. 선배 중 한 명은 수간호사 승진을 마다하고 환자 옆에서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로 남기를 선택했는데 역시 지금은 병원을 떠나 대학에 있다. 그 선배가 쓴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뭉클하다. 그러나 역시 현장간호사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 간호사 채용면접에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호부장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정작 나는 선배처럼 환자 옆에서 직접 간호하고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다.

다른 병원 관리자들과의 모임에서 ‘요즘 간호사와 소위 ‘나 때는’을 말하다가도 누군가 ‘지금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또 금방 공감을 한다. 주5일 근무, 여성모성보호 강화, 야간근무 개선 등 많은 부분에서 근무조건이 나아지고 있으나 환자를 보는 그 시점에서의 업무량과 강도는 거의 개선이 없는 것 같다. 현재 전국적으로 병원신규간호사 이직률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지금 병원현장은 너무 어렵다. 국가적으로 지원책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정말 염려되는 상황이다. 나는 간호사가 즉각 처리할 업무에 80%의 자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자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가고 비상상황을 살피고 대비할 여력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환자가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대별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내기도 급급하다. 조금 떨어져서 보면 부족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측은하고 안쓰럽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특성상 발생하는 끊임없는 갈등과 현실적인 한계에 괴롭기도 하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 괴롭고 화나고 짜증 나는 마음이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을 안다. 진정한 원으로 병원발전과 직원행복을 바란다면 현실적인 여건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몰라준다고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내 욕심만큼 되지 않는다고 걱정만 할 것도 아니다. 다만 진정으로 함께하겠다는 원으로 다가가고 더 정진할 뿐이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작년부터 병원 불자모임인 연우회에서 시작한 슬기로운 신행생활에 맞추어 108배, 사경 등을 300일 넘어 하고 있다. 덕분에 부처님 법을 깨닫는 목표를 향한 마라톤을 펼 준비를 시작하는 느낌이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비율은 무척 낮지만, 준비운동을 하고 출발선에 나가야 결승선에 도착할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이번에 꾸준히 보낸 시간이 그나마 괴롭고 힘든 순간마다 그 곳을 빠져 나오게 하고 적어도 빠져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봉정암 오르는 계곡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그리고 한발 한발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봉정암 사리탑에 앉아 능선을 바라본다. 평소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찬다는 사리탑 앞, 지금은 나 혼자 뿐이다.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본다. 벌들이 내 팔뚝에 와서 앉는다. 헤엄스님께서 시자스님께 했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방안 창호지에서 나갈 길을 찾아 헤매는 벌을 수건으로 감싸서 밖으로 내보내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수건 안에서 발버둥치는 벌을 보며 일렀다는 말씀이다. 발버둥치고 살려는 노력이 죽는 길로 가는 중생에게 살 길을 잘 알려주라고 당부셨다고 한다. 벌은 놀라면 침을 쏘고 독을 뱉지만, 결국 침과 연결된 내장이 빠지면서 죽게 된다. 진정 살 길을 잘 찾을 일이다.

봉정암 사리탑에 앉아 2600여년전 몸소 길에서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과 그 법을 기나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어오신 스님들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곳에서 기도했던 분들의 절절함을 생각한다. '그토록 오래 우리와 함께 했었고, 해처럼 밝고 찬란한데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길'을 안내하는 분들을 만나고 배우게 된 인연에 감사하며 이제 산을 내려간다. 하산 길에 만난 소나기가 참 시원하다! **정막도량**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ilove.dongguk.ac.kr



소액기금모금 캠페인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dongguk university gyeongju



1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로명 주소 : **동대로 123**
 2 교육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대로 123**
 3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대로 123** 매월 1만원, 2만원, 3만원 참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100주년기념관 3층 대외협력실
 전화 054) 770-2200 / 2500 팩스 054) 770-2003 http://ilove.dongguk.ac.kr

기부 어렵지 않아요! 쉬운 기부! 즐거운 기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스마트폰(QR코드) 약정

핸드폰 QR코드검색 후
참여신청서 작성

02



휴대폰 사진전송

참여신청서 작성후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
010-6516-1027

03



홈페이지·종이·전화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팩스·우편·전화로 참여

후원금은 여기에 사용됩니다.

후원금 전액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인재육성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1인 1월 1만원

만인공덕 인재불사

동국사랑

1·1·1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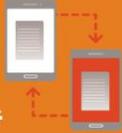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여
한국불교의 증흥과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동국사랑 1·1·1 캠페인 동참 방법

1

휴대폰 사진 전송



본 포스터를 사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1800-3283)

※휴대폰으로 담당직원이 전화 연락드리겠습니다.

2

스마트폰 약정



스마트폰으로 상단 QR코드를 스캔 후,
모바일 약정서 작성

스캔
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다음앱 접속
- ② 검색창 오른쪽 마이크 아이콘 클릭
- ③ 코드 메뉴 클릭 및 QR코드 스캔

3

후원 문의



전화 : 02-2260-3300
홈페이지 : ilove.dongguk.edu
팩스 : 02-2260-3796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